

별 첨

서울 인구 전·출입 패턴 및 요인 분석

2022.05.



1

서울의 장기 인구변화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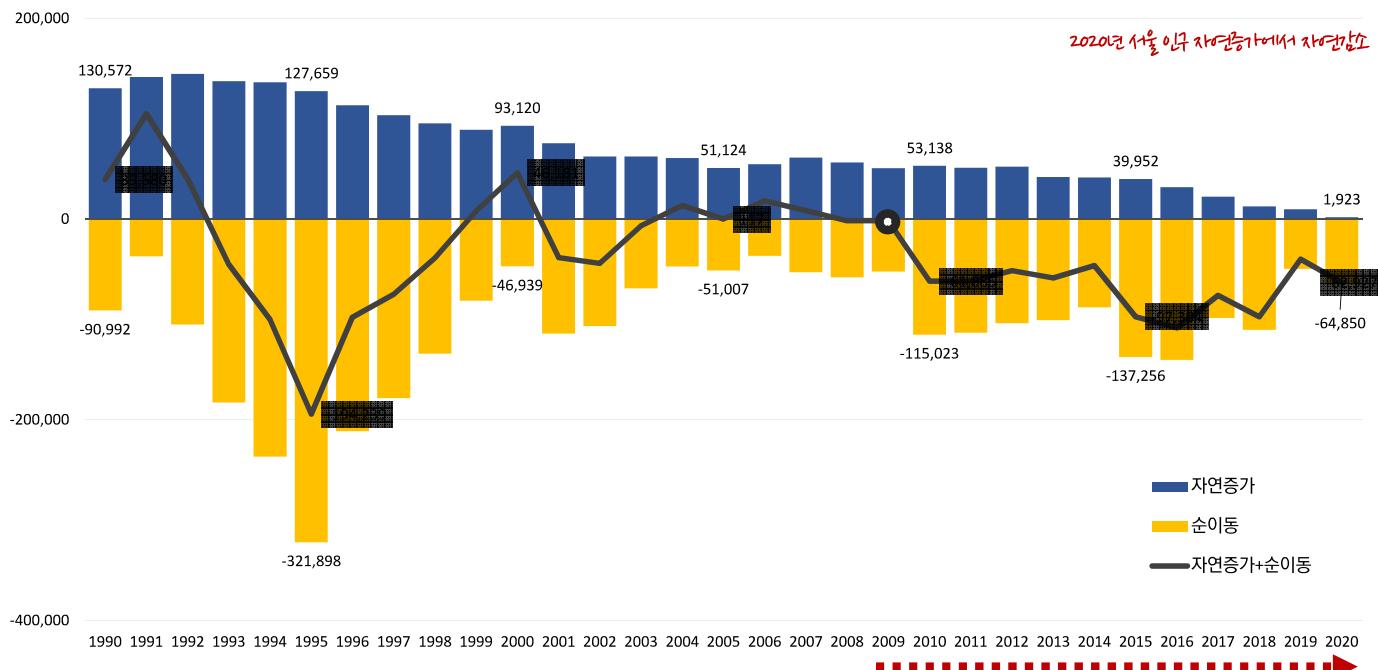
서울의 인구는 1990년 1,060만 명을 정점으로
2015년 1,000만 선 밑으로 감소하여 2021년 950만 명 기록



2

서울시 인구는 2010년 자연증가와 순이동의 균형점이 무너진 이래 지속 감소 이제 서울시 인구 변화는 사회적 증감에 의해 좌우

서울시 인구변화(자연증가+순이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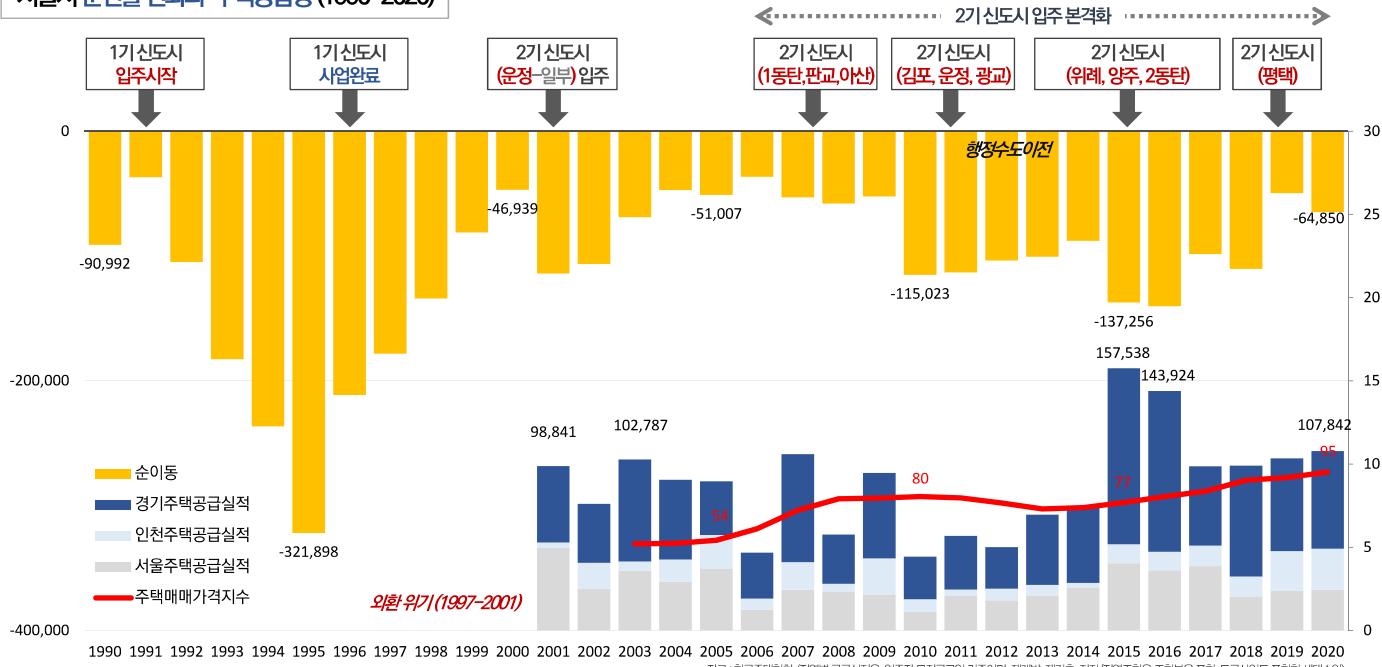


3

서울 인구감소의 주요원인 : 대규모 도시개발

신도시 건설, 외곽 주택지 개발 등이 서울 인구의 전출을 유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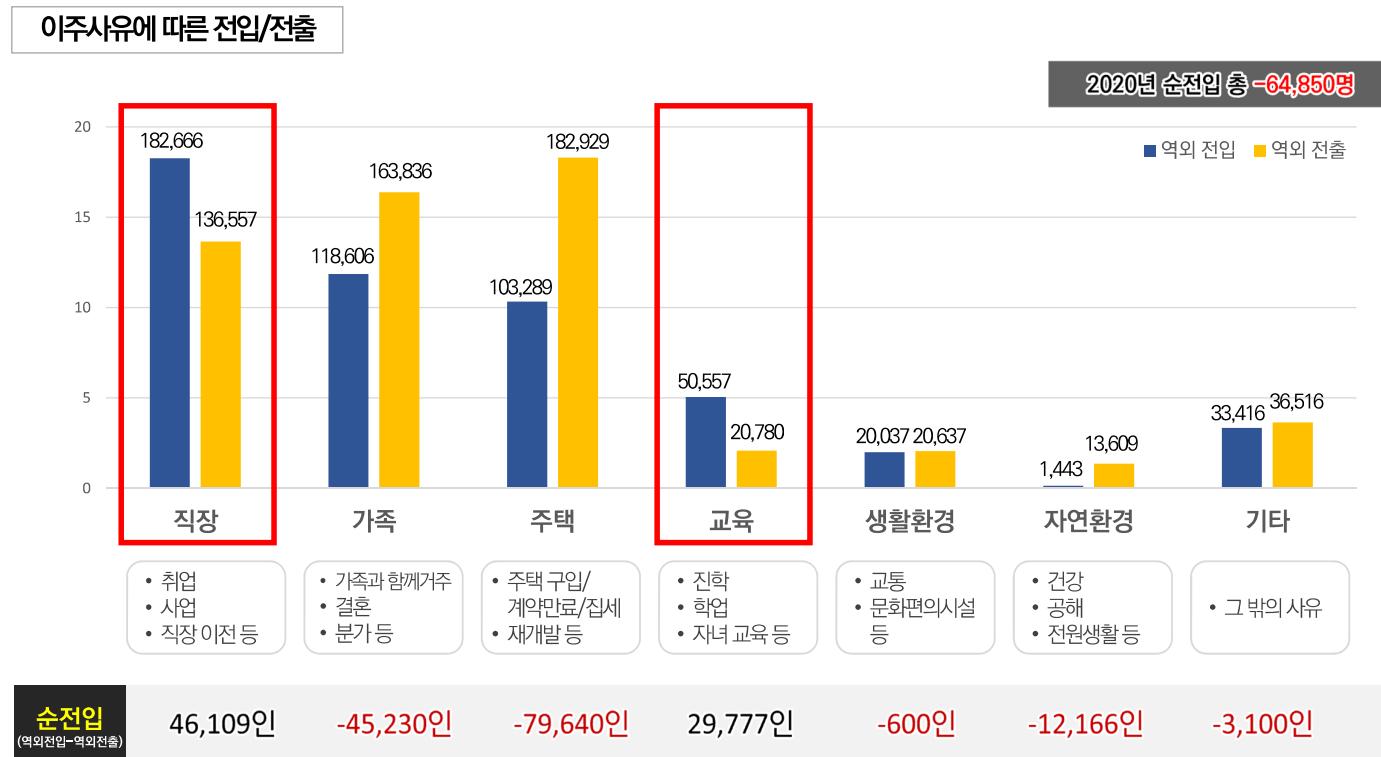
서울시 순전출 변화와 주택공급량 (1990~2020)



서울시 순전출은 수도권 신도시 입주시점마다 증가, 주택 매매가격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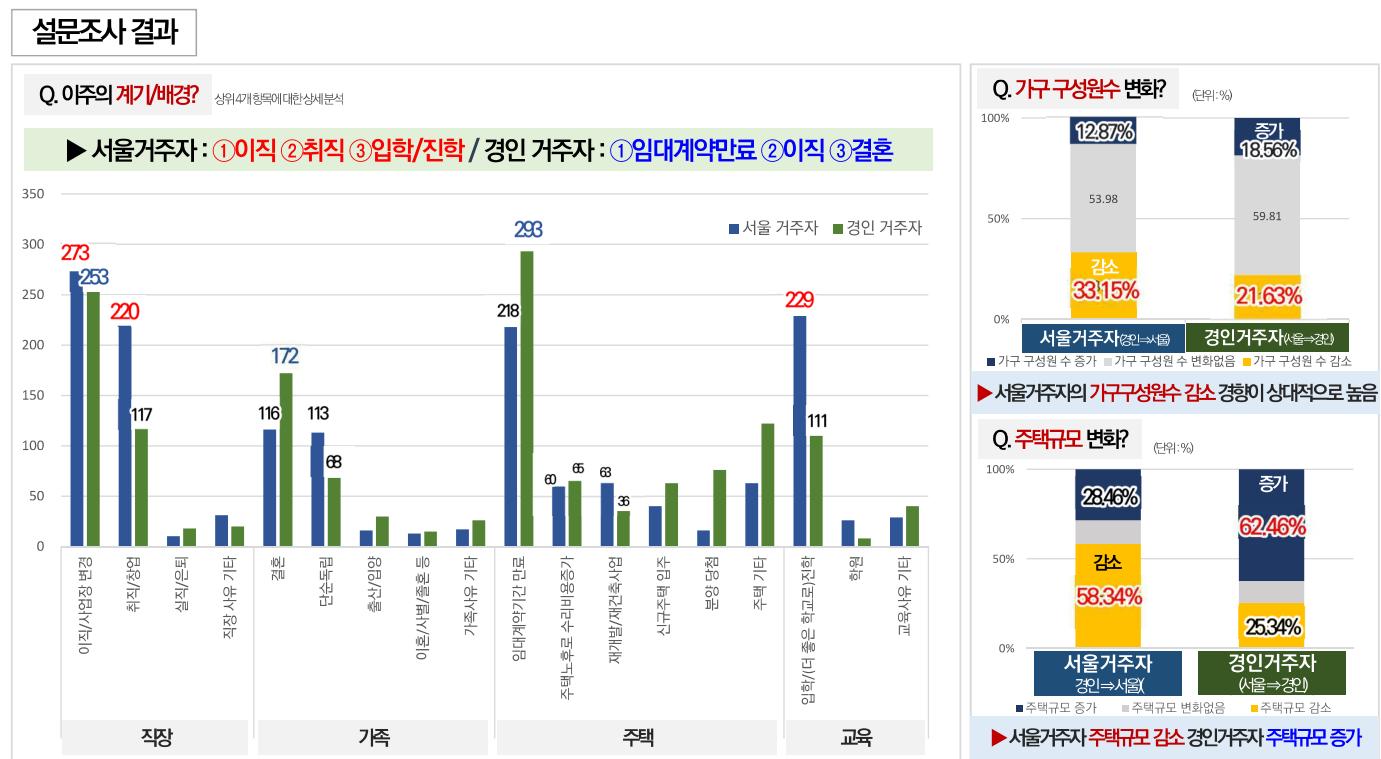
4

서울 시외 전입 사유는 직장, 가족, 주택 순 / 서울 시외 전출 사유는 주택, 가족, 직장 순 서울 시외 순전입은 직장, 교육 사유에서(+), 그 외 모든 사유에서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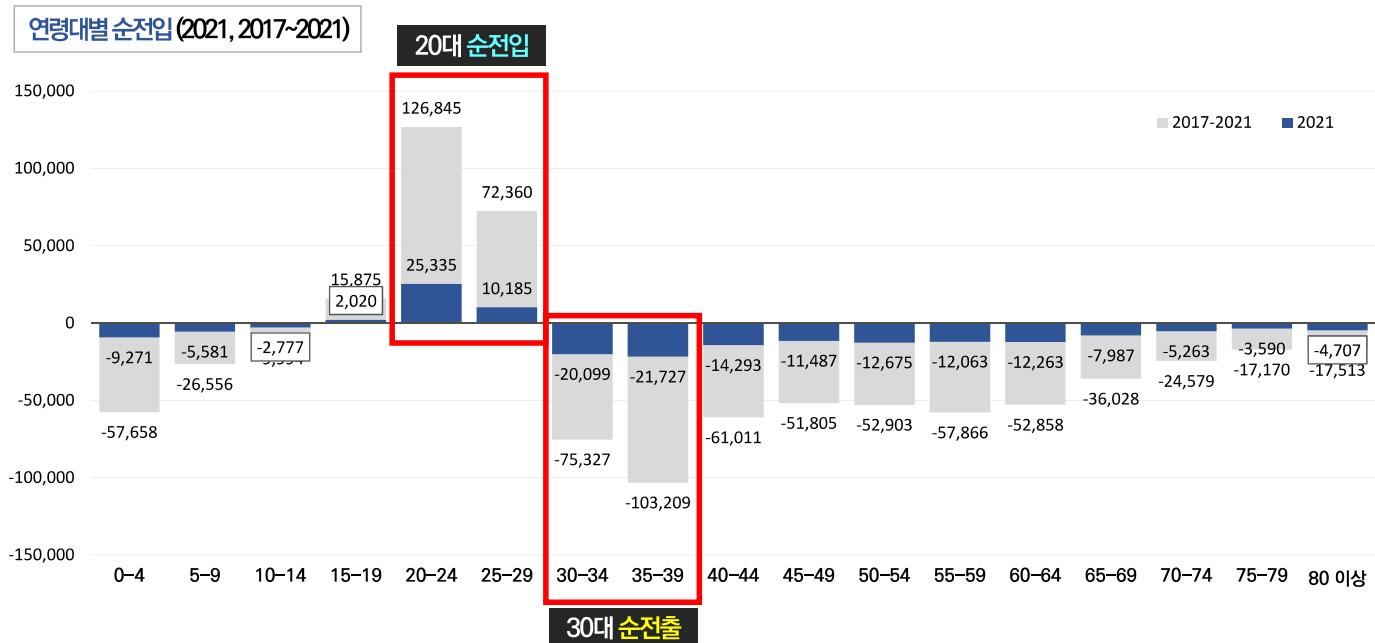
5

서울 전입 사유는 이직, 취직, 입학·진학 순 / 서울 전출 사유는 임대계약만료, 이직, 결혼 순 첫직장/이직은 서울로, 결혼/이직하면서 서울 떠나



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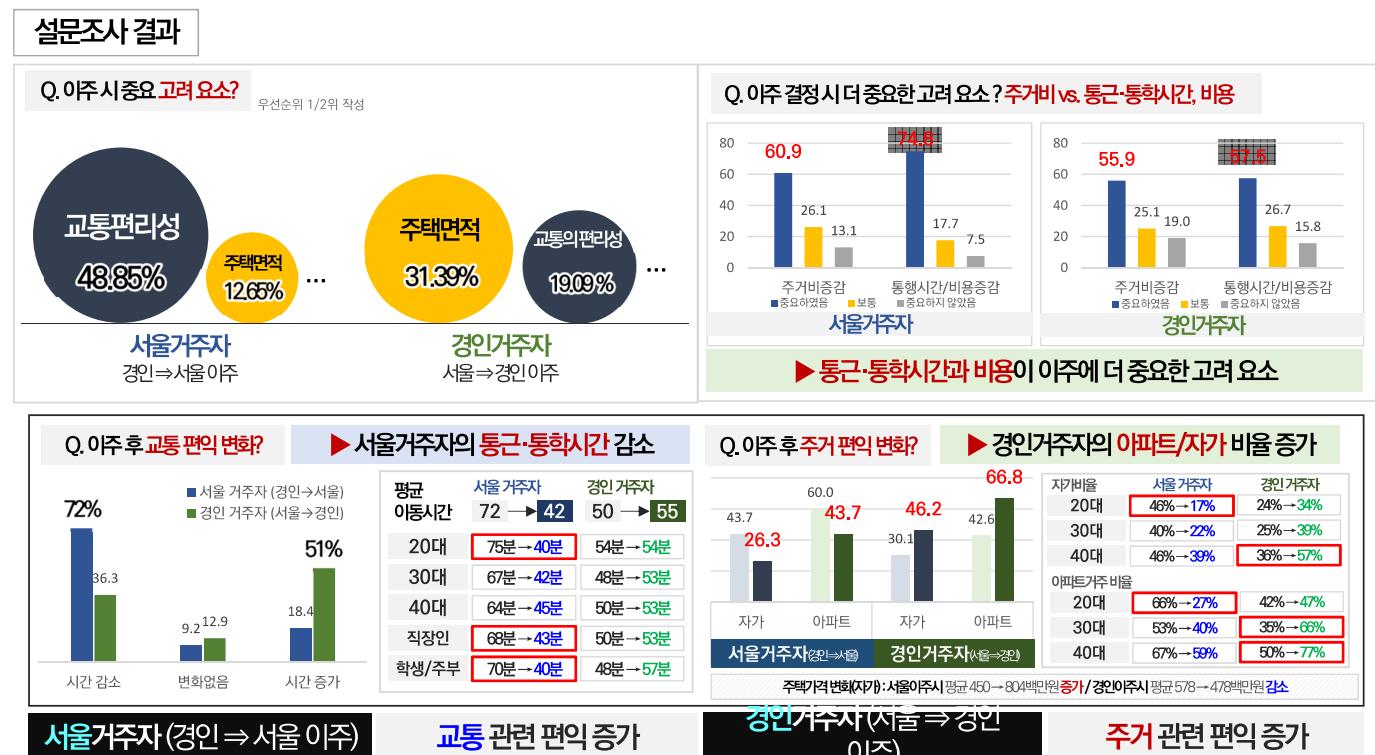
연령별 서울시외순전입·순전출 20대 유일한 서울순전입 연령, 그 외 전연령층에서 순전출



인구정책 수립·추진 시 '2030 청년층' 그루핑 오류 우려 → 연령별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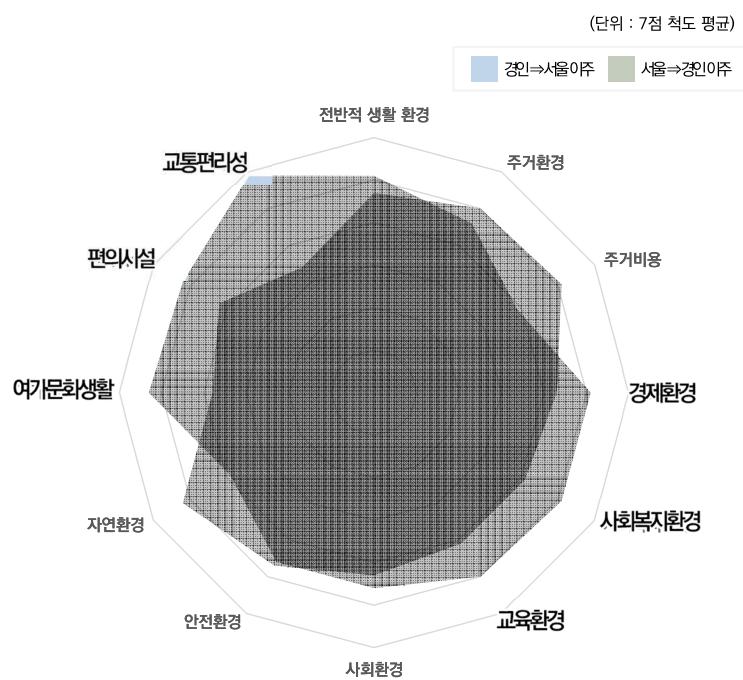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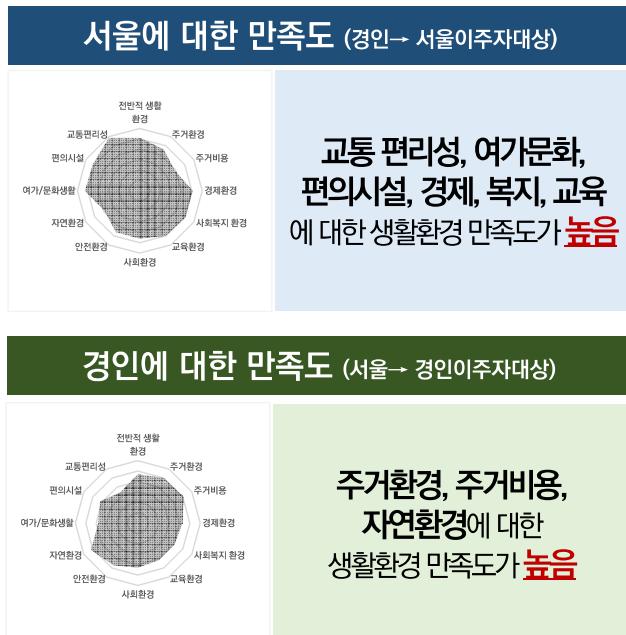
서울 전출입 시 교통 편리성과 주거 편익성 변화 교통 편리성 찾아서울로, 주거 편익성 찾아서울떠나

서울 이주자의 대부분 통행시간 감소, 교통 편리성 체감 / 경인 이주자의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을 경험하고, 주거 편익이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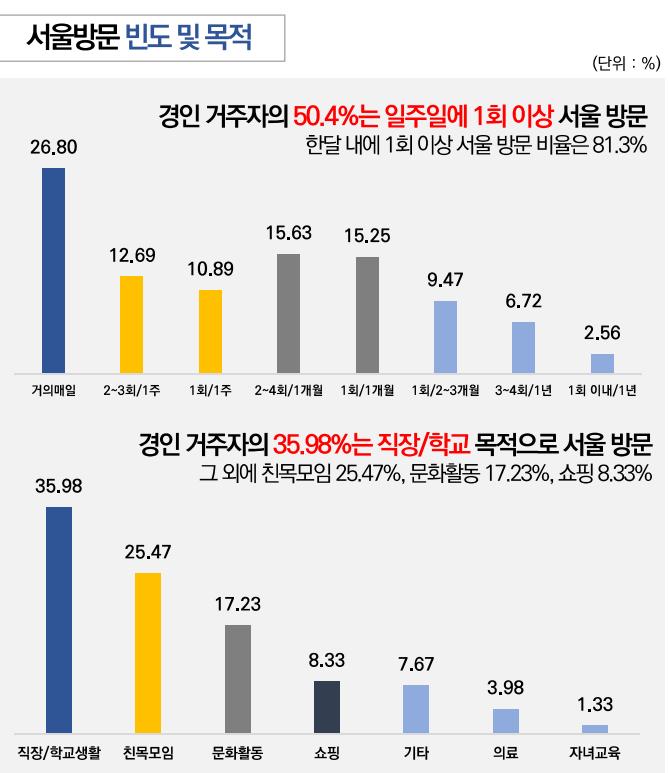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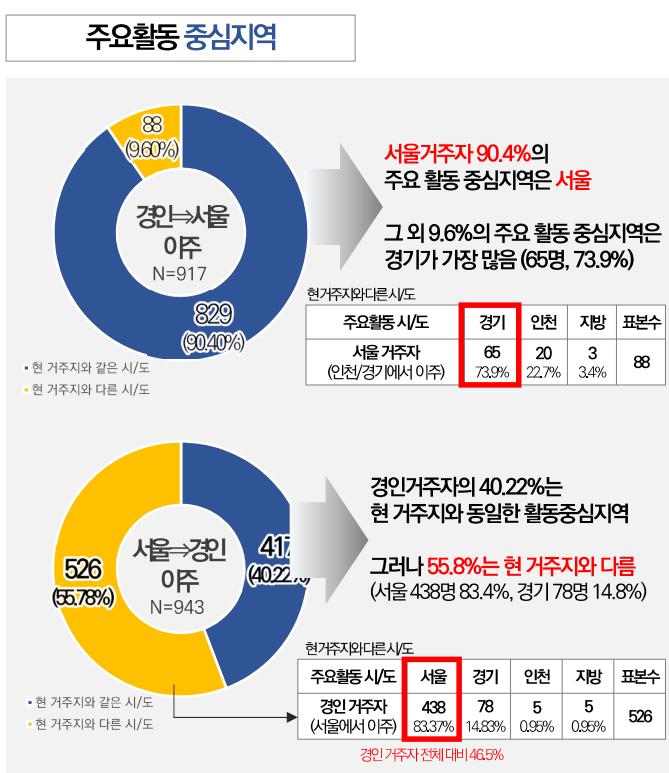


서울시로 이주 후 생활환경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 특히 교통편리성, 여가문화에 대한 서울의 만족도가 높음

이주 후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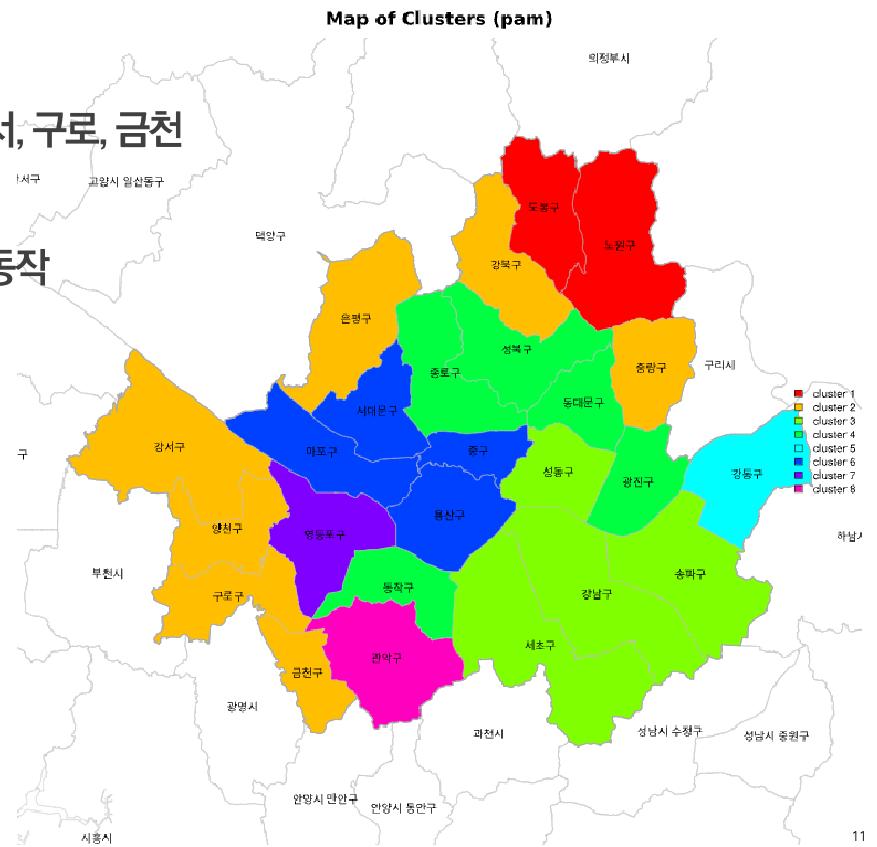


경인지역 거주자의 438명(46.5%)가 '서울'이 주요 활동 중심 지역 현 거주지, 이주와 무관하게 서울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음



8개 유형으로 서울시 자치구 분류

- 유형1: 도봉, 노원
 - 유형2: 중랑, 강북, 은평, 양천, 강서
 - 유형3: 성동, 서초, 강남, 송파
 - 유형4: 종로, 광진, 동대문, 성북, 동작
 - 유형5: 강동
 - 유형6: 중, 용산, 서대문, 마포
 - 유형7: 영등포
 - 유형8: 관악



이주사유에 따른 자치구별 순이동 네트워크

